

□ 종합의견

2026 만화웹툰 해외진출지원(독일) 사업은 단순 콘텐츠 경쟁을 지양하고, 유럽 수출 성과의 실질적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유럽 현지 파트너사 확보 여부, 구체적인 계약 목표치, B2B 추진 계획의 실효성을 중점 평가하였습니다.

참가기업들은 로맨스 판타지, BL, 액션 등 유럽 트렌드에 부합하는 흥행 IP들을 적극 제시했습니다. Carlsen, Papertoons, PIKA 등 현지 거점 출판사와의 사전 미팅 스케줄과 현지 연계 B2C 스탬프 랠리 등 고도화된 전략을 증명하여 성과 가시성을 높인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사는 우수한 IP 역량에도 구체적 수치나 실행 계획이 누락되어 아쉬움을 남긴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선정 기업들이 수립한 비즈니스 목표를 차질 없이 성사시키고, 유럽 시장 내 K-웹툰의 프리미엄 가치를 확고히 하기를 기대합니다.